

국힘, 비례 당선권에 '호남 인사 전진배치' 추진

당선 안정권인 22번 안에 5명 이상 고려 주기환·김화진·인요한·민영삼·김가람 거론 21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확정 예정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비례 후보자 순번 배치와 관련해 호남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의 불모지 호남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순번 배치에도 호남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1년 서진정책의 일환으로 호남 등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를 명문화한 바 있다. 실제 국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작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자를 비례대표 '당선권 이내·25% 규모'로 우선 추천하게 돼 있는데 21대 총선 결과

과를 적용하면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해당한다. 당 관계자는 "취약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당헌·당규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선 특히 16번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선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후보자의 당선 안정권은 22번까지라고 본다"며 "호남 출신은 5명 이상 최대한 앞 순번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호남에서는 ▲주기환(광주)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고흥)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익산) 국민의회 전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국민의미래에 입당한 상태다. 또 목표 출신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 연구원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당내에선 순천 출신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비중있게 거론된다. 인 전 위원장은 일제에 저항했던 가문 출신의 호남 토박이에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이미지, 혁신위 활동을 통해 얻은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갖

았다. 당 관계자는 인 전 위원장에 대해 "충분한 고려 대상이다.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며 "그가 등판하면 당내 호남 인사를 등용문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가람(광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공천 신청 마지막 날인 7일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미래는 이날까지 접수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를 평가해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21-22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일단 18일 정도에는 후

보 추천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후보 등록 전까지 또 한 번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별 이의 제기까지도 살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이 끝나는 대로 소속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보내는 작업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받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 5번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수기자

민주 경선 '비명횡사'...친명 "민심 반영" vs 비명 "중도층 악영향"

더불어민주당 총선 지역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에게 패하는 결과가 나오자 7일 당내에서는 계파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감지됐다. 당 중앙선관위가 전날 발표한 경선 결과를 보면 강병원·김한정·윤영찬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각각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김병주·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등 친명계 후보들에게 줄줄이 무릎을 꿇었다. 친명계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싸우라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은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개혁하라. 검찰 독재를 막아내라"라고 적었다. 경기 하남갑에 단수 공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확인했다"며 "총선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자"고 밝혔다. 계파와 무관하게 이번 경선 결과는 비명계 현역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구 관리를 충실히 했다면 경선에서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안규백 위원장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대문갑 청년후보자 공개 심사에서 안규백 전략공천과 리워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대문갑을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 뒤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친명, 비명 경선 패배에 "지역구 관리 충실히 안한 결과" 비명 "친명 강화, 총선에 좋지 않고 당 결집 약화 초래"

반면, 비명계는 총선 후보들이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지는 면이 있다며 중도층 표심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당의 단합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갑석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당의 친명 구도가

강화하는 것은 전체 총선 구도에 좋지 않고,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결과에 따라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된 비명계 박

용진 의원 역시 당의 통합을 걱정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드는 성적을 받아 경선 득표에서 30%를 감산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박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감산이 없었으면 1차 경선에서 끝났을 것이지만, 이 또한 당원과 주민의 결정이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친명계) 당내 비주류와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광은, 불과 3표차 아쉬운 '패배'

당내 "하위 20% 충격적...백봉신사상 2번 받은 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지역 경선 결과 해남 출신의 박광은 국회의원이 정지신인인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에 불과 3표 차로 패배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비이재명)계인 박광은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일반시민 투표에서는 61% 대 39%의 득표율로 이겼지만 권리당원 투표와 가산·감산을 모두 종합한 결과 최종 3표차(0.15%p)로 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하위 20%'에 들어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한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부교수는 10%의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탈락에 대해 당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워낙 좋은 평가를 얻었던 데다, 전직 원내대표를 지냈던 만큼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식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가장 모범적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었다. 권위 있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두 번이나 받은 것은 드문 일이다. /김진수기자

홍영표·설훈, '이낙연 신당' 입당키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과 설훈(5선·경기 부천시을) 의원 및 새로운미래가 7일 '민주연대' 결성을 공식화했다. 홍·설 의원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박영순(초선·대전 대덕) 의원 등 4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버리는 모든 분과 힘을 합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방탄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 방탄으

로 상쇄됐다"며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며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인 홍 의원과 설 의원이 이미 창당돼있는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되, 추후 논의를 통해 당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함께 총선을 치를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